

Analysis of Data from USA Region Using Additive Regression with Hilbertian Responses

기도형¹, 유명훈¹, 이경원², and 이동현²

¹*Department of Mathema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tat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14, 2019

1 Introduction

우리는 비모수함수추정론 강의를 통해 smooth backfitting 알고리즘을 사용한 additive mean regression model의 적합,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convergence를 포함한 asymptotic property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mean을 추정하고자 하는 반응변수(response)가 Euclidean인 경우에서 더 나아가 Hilbertian인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Simplex 데이터는 Euclidean 형태이나 모든 원소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비율의 형태로서, 실존하는 데이터 형태 중에서 non-Euclidean이면서 Hilbertian인 대표적인 형태이다. Hilbertian response에 대해 처음으로 smooth backfitting을 통한 additive regression model을 제시한 논문(J. M. Jeon, B. U. Park)에서도 simplex 데이터가 대표적인 실제 데이터 예시로써 활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논문에서 제시된 코드를 사용하여 미국 지역별 인종 비율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이고, 각 주마다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과 평균 소득 등의 생활 관련 요소들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요소들이 인종 비율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additive model을 적용하고, 각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인종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다.

2 Data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각 주(State) 별 인종 분포는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제공하는 State Population by Characteristics: 2010-2018 자료¹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자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각 주별 특성별(성별, 인종, 나이 등) 인구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에서는 인종을 (1) 백인과 그 혼혈, (2) 흑인과 그 혼혈, (3) 아시안과 그 혼혈, (4)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그리고 그들의 혼혈, (5) 하와이 원주민과 그 혼혈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한 사람이 여러 인종의 혼혈인 경우, 그 사람을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서 셈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7년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과 시각화의 편의를 위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인과 그 혼혈(Y_1), 흑인과 그 혼혈(Y_2), 아시안과 그 혼혈(Y_3)의 비율을 반응변수 $\mathbf{Y} = (Y_1, Y_2, Y_3) \in S_1^3$ 로 사용하였다.

각 주별 연령(X_1) 또한 State Population by Characteristics: 2010-2018 자료를 통해 계산한 2017년 기준 주별 연령 분포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각 주별 범죄율은 FBI에서 제공하는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2017-2018의 보고서²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자료는 2017년과 2018년의 강력범죄(violent crime)와 재산 범죄(property crime)의 통계를 각 주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강력범죄 통계만을 사용하여 각 주의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각 자료는 미국 각 주별 관측치와 워싱턴 D.C.의 관측치, 총 51개의 관측치로 이루어져 있다.

3 Methods

반응변수 $Y = (Y_1, Y_2, Y_3)$ 는 유클리드 공간 상의 자료가 아닌 3차원 simplex S_1^3 위의 자료이다. 이 절에서는 p 차원 simplex S_1^p 위의 자료(composi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begin{aligned} \mathbb{E}[\mathbf{Y}|\mathbf{X} = \mathbf{x}] &= (\alpha_1(\mathbf{x}), \alpha_2(\mathbf{x}), \dots, \alpha_p(\mathbf{x})), \\ \alpha_1(\mathbf{x}) &= \frac{1}{1 + \sum_{l=2}^p \exp(\beta_{l0} + \beta_l^T \mathbf{x})}, \quad \alpha_j(\mathbf{x}) = \frac{\exp(\beta_{j0} + \beta_j^T \mathbf{x})}{1 + \sum_{l=2}^p \exp(\beta_{l0} + \beta_l^T \mathbf{x})}, \quad \text{for } j \geq 2 \end{aligned} \quad (1)$$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모수 β_{j0}, β_j 의 추정으로 최소제곱 추정(least squares)이나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Kullback-Leibler divergence를 최소화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text{KL} = \sum_{i=1}^p \sum_{j=1}^p Y_{ij} \log(Y_{ij}/\alpha_j(\mathbf{X}_i)).$$

¹<https://www.census.gov/data/tables/time-series/demo/popest/2010s-state-detail.html>

²<https://ucr.fbi.gov/crime-in-the-u.s/2018/crime-in-the-u.s.-2018/tables/table-4>

각 모형은 R의 `Compositional` 패키지의 `ols.compreg`, `kl.compreg`를 이용해 적합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에서는 Jensen-Shannon divergence, symmetric Kullback-Leibler divergence 등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적합하는 함수들 또한 제공하고 있다.

\mathbf{X} 가 주어졌을 때, \mathbf{Y} 의 조건부 분포를 디리클레(Dirichlet) 분포로 가정한 *Dirichlet regression model*

$$\mathbf{Y}|\mathbf{X} = \mathbf{x} \sim \text{Dirichlet}(\phi\alpha_1(\mathbf{x}), \phi\alpha_2(\mathbf{x}), \dots, \phi\alpha_p(\mathbf{x})), \phi > 0 \quad (2)$$

을 적합할 수도 있다. 이때 ϕ , β_{j0} , β_j 의 값의 추정은 최대가능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다. `Compositional` 패키지의 `diri.reg` 함수를 이용해 적합할 수 있다.

위의 모형들은 $Y_i = 0$ 인 자료가 존재할 때, 모형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M. Tsagris (2015)가 제안한 *Regression with compositional data using the α -transformation* (α -regression)을 고려해볼 수 있다. α -regression 모형은 M. T. Tsagris, Preston, and Wood (2011)가 제안한 α -transform을 통해 자료를 변환하고, 변환된 자료에 적당한 모수적 모형을 적합한다. 이때, 조율 모수(tuning parameter) $|\alpha| < 1$ 값은 cross validation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α -regression 모형은 `Compositional` 패키지의 `alfa.reg` 함수를 이용해 적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모형들은 모두 모수적 모형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를 추정하기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으로 Jeon and Park (2018)이 제안한 *Bochner smooth backfitting estimators* (B-SBF)을 고려해볼 수 있다. B-SBF 모형은 앞서 언급한 모형들에 비해 모형의 형태에 큰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적합에는 앞서 언급한 모형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유연한 구조를 갖는 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B-SBF 모형은 github repository <https://github.com/jeong-min-jeon/Add-Reg-Hilbert-Res>의 소스코드를 이용해 적합할 수 있다.

4 Results

Figure 1은 Jeon and Park(2018)에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해서 적합한 성분비의 추정 값들이 각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분비의 추정 값을 계산할 때 정해진 한 변수를 제외하고 다른 변수들은 모두 평균값으로 세팅하였고, 한 변수의 값을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성분비의 추정 값이 분포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그림은 연령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구 구성비 중에서 흑인과 백인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변화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백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흑인의 비율은 증가하다가 일정 나이대를 지나면 다시 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흑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양인의 비율은 평균 연령대가 변화해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 두 번째 그림은 수입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4개의 요인에 비해서 많이 불규칙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평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동양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흑인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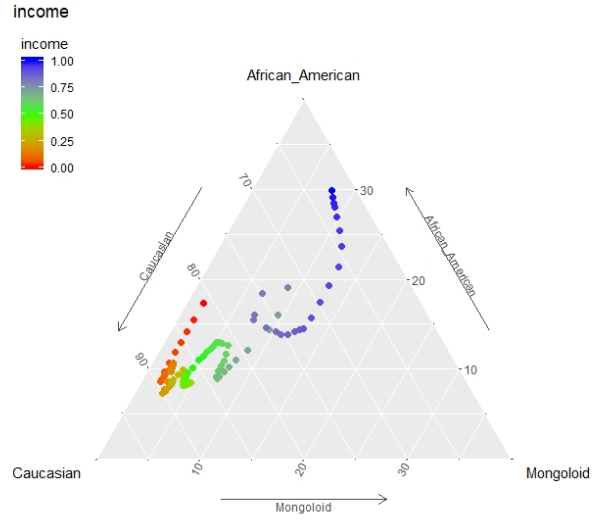


Figure 1: TEST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백인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 수입 최상위층 구간에서 흑인의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동양인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세 번째 그림은 범죄율이 변함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극단을 제외하고는 범죄율이 높을수록 흑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백인의 비율은 줄어들이지만, 극단에서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되고 있다. 한편 동양인의 비율은 범죄율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그림은 일정 온도 이하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흑인의 비율은 늘어나고 백인의 비율은 줄어들이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흑인의 비율은 줄어들이고 동양인의 비율은 두드러지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래스카와 같은 척박한 곳에는 백인의 비율이 높지만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온도가 오를수록, 즉 살기에 더 쾌적할수록 동양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그림도 네 번째 그림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즉 강수량이 낮은 구간에서는 백인의 비율이 높지만 일정 강수량 이상이 되는 지점부터는 강수량이 늘어날수록 동양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5 Conclusion

References

- Jeon, J. M., & Park, B. U. (2018). *Additive regression with hilbertian respon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 on pp. 2999–3001).
- Tsagris, M. (2015). Regression analysis with compositional data containing zero values. *arXiv preprint arXiv:1508.01913*.

Tsagris, M. T., Preston, S., & Wood, A. T. (2011). A data-based power transformation for compositional data. *arXiv preprint arXiv:1106.1451*.